서동생가터 유적정비 1단계 준공

수변전망테크·산책로·꽃밭 등 시민 위한 힐링 공간 조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추진… 익산 관광 거점 도약 '기대'

익산시가 백제 무왕의 탄생지로 알려진 서동생가터와 연동제(마룡지) 일원의 유적을 정비하고 본격 개방에 나선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비 136억 원을 포함, 총 194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사업'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정비를 통해 수변전망테크, 산책로, 꽃밭, 주차장 등 다양한 힐링 공간이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쉼터를 제공한다.

특히 마룡지 주변에는 초화류를 식재하고, 산책길 곳곳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감각적인 야경을 연출했다.

야간경관은 오는 5월 3일 서동축제 개막과 함께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 조성된 제2주차장(연방죽 가든 옆)을 이용하면 산책로로 바로 접근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서동생가터 정비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됐으나, 부지 내 석축, 저온저장고 등 다양한 유구가 발견되면서 발굴조사가 병행됐다. 이에 따라 발굴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1단계로 구분해 우선 조성했으며, 하반기에는 수변테크 주변 추가 경관조명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단계 정비공사는 올해 설계와 착공 후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서동생가터 정비를 통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및 활용 기반을 다지고,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백제왕궁, 금마저 등 주요 유적지와의 연계를 강화해 익산의 고도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서동생가터 유적 개방을 시작으로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고도 이미지 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세계유산센터와 연계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익산을 백제역사의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역사·문화적 정체성 회복을 위해 2004년 지정된 고도지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청의 국비 지원을 받아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고도한눈애(愛) 세계유산센터 건립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고도 이미지찾기(한옥지원) △백제왕궁금마저 조성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우수 농특산물로 '서울시민 입맛 사로잡는다'

군산시, 서울동행상회 입점·라이브 커머스 진행 등… 서울·수도권 소비시장 공략 총력전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인지도 상승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부터 군산 우수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소비시장 공략에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행사로 △'서울동행상회' 입점 및 기획전 행사 △'광화문책마당 동행마켓' △군산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 지원 등이 있다.

올해는 지난 7일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사업단')의 관계자 6명이 직접 '군산회현농협RPC', '비응도등대가', '군산로컬푸드직매장'을 찾아 온·오프라인 몰에 적합한 상품을 조사하기도 했다.

'서울동행상회'는 지역의 중·소농을 돕고 서울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종로구 안국동에 설립한 농특산품 오프라인 상설매장이다. 현재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 전국 각지의 고품질 우수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판매되고 있다.

입점 업체는 전국 12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10여 개 업체이며, 군산은 △파머드림 '귀리미숫가루', △하롬 '군산맥주효모샴푸바' △메인쿤브투잉 '째보선장라거 수제 맥주' 등 총 15개 업체, 43개 상품이 입점해 있어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입점 상품들의 반응도 뜨겁다. 특히 지난해 판촉 기획전과 실시간 상거래에서 첫선을 보인 회현농협의 '옥토진미'는 서울동행상회 온라인몰 입점 이래 베스트 상품 1위에 올랐으며, 현재 누적 판매 1위를 기록했다.

더불어 판촉 기획전에 참가했던 '비응도등대가'의 간장게장과 양념게장도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이번 실시간 상거래를 진행하게 됐다.

황관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산의 농특산품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서울 등에서 인지도가 높아짐에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대상주식회사,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약 맺어

국립군산대학교와 대상주식회사는 29일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립군산대에서는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 오정근 글로컬대학추진단장, 정승우 환경공학과 교수, 한세민 대외협력본부장과 대상주식회사에서는 이병선 E&E실 상무, 김무열 E&E기획팀장, 이건명 SHEE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지역의 에너지 중심 혁신거점 구축에 있어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동연구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공동연구를 위한 새만금 부지 공동 활용 △상호 전문인력 교류 통한 기술 및 지식 확산과 연구 활성화 △기술·인력 및 장비사용 협력 △지역발전 및 상생 협력 방안 도모 등이다.

국립군산대학교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이번 협약은 대상주식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 유망 강소기업 유치 박차

알엠지·메디아앤메디올로지와 투자협약 체결

익산시가 홀로그램 첨단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과 손잡고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알엠지(대표 김희정), ㈜메디아앤메디올로지(공동대표 정광일·박정하)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양사 대표, 최대규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는 홀로그램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첨단기술 기업 유치를 통해 기술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알엠지는 경기도 군포시에 본사를 둔 홀로그램 위조방지 라벨 제조 전문기업으로 2016년 설립됐다. 정품 확인용 보안 라벨과 큐알코드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다수의 국내외 특허와 상표·디자인 등록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메디아앤메디올로지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 전문기업으로 2023년 설립됐다. 가상현실 기반 서비스와 홀로그램 뷰어, 자체 제작(DIY, Do It Yourself) 연동 키트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고카트와 자율주행 미니카 등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특허로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익산시는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홀로그램 기술 실증 지원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지원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및 가시화 서비스 사업화 실증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지난 28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간전문가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의회는 지난 2022년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에 근거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7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4월까지이며,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경진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지성을 바탕으로 의원들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익산시의회도 한층 더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승화원, 화장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군산시는 군산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장 수요 증가와 화장시설 노후화,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현재 군산승화원에는 5기의 화장로가 운영 중이며, 일일 평균 11구의 시신이 화장되고 있다. 지난 한식 기간에는 개장유골이 하루 평균 31기 화장되기도 했다. 특히 다가오는 윤달(2025년 7월 25일~8월 22일)에 대비해 사전점검과 화장로 개보수를 통해 원활한 화장 수요 대응에도 대비하고 있다. 군산승화원은 추모 1~4관과 화장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준공된 추모 4관은 약 2만 기의 봉안 설비를 갖췄다. 시는 추모 4관 준공으로 앞으로 15년간의 봉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화장장 신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을 확보해 화장시설의 현대화와 유족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전국 장애인 종별 육상선수권 대회 성료

익산시에서 펼쳐진 장애인 육상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과 감동의 무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제6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선수권대회 겸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이 이달 27일부터 3일간 익산시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대한장애인육상연맹과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육상연맹과 전북장애인육상연맹이 공동 주관했다. 3일간 전국 각지에서 8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대회는 트랙과 필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해 차세대 국가대표 발굴에도 의미를 더했다.

/익산=이재춘 기자